

고려대학교 철학과 70년*

—동양철학

김형찬**

I. 고려대 철학과 70년과 한국 동양철학 70년

‘고려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던 1946년 8월, 철학과는 신설된 문과대학에 국문과·영문과·사학과와 함께 설립되었다. 광복 당시 보성전문학교 교수였던 이종우(李鍾雨), 이상은(李相殷), 박희성(朴希聖) 등 3인의 학자로 교수진을 갖춘 철학과는 전문학교 2학년을 마친 학생들과 함께 9월부터 철학과 1학년 수업을 시작하였다. 예과를 거친 학생들이 철학과를 선택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48년 9월부터였다. 당시 철학과는 서양철학 전공과 동양철학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2학년까지는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크

* 이 글은 200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창립 60주년 기념해 필자가 썼던 「고대 철학과 60년-동양철학」에 그 후 10년의 역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고대 철학과 60년-동양철학」은 1996년에 당시 철학과에 재직 중이던 윤사순 교수가 집필한 「고대 철학과 50년의 회고-동양철학」(『철학연구』제19집, 고려대 철학연구소, 1996)을 바탕으로 하여 씌어졌다. 윤사순 교수가 50년사를 정리해 둔 덕분에 고대 철학과 60년사와 70년사가 단순한 기록의 나열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과 기억의 기록이 될 수 있었다.

**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게 다르지 않았다.

이 무렵 철학과의 동양철학 담당 교수는 중국철학 전공자인 이상은 교수뿐이었지만, 고려대 동양철학의 역사는 한국유학 전공자로 당시 초대 총장을 맡고 있던 현상윤(玄相允) 교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1950년대에 인도·불교철학 담당의 김동화(金東華) 교수와 노장철학 담당의 김경탁(金敬琢) 교수가 부임하면서 이른바 본교 철학과 제1세대의 진용이 갖추치게 되었다. 이분들은 1960년대까지 한국철학계의 동양철학 연구를 이끌며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이분들이 납북(현상윤·1950), 전출(김동화·1962), 작고(김경탁·1970), 퇴직(이상은·1971) 등의 이유로 철학과를 떠난 뒤 제2세대의 동양철학 교수진을 이룬 학자들이 김충렬(金忠烈·중국철학), 윤사순(尹絲淳·한국철학), 김하우(金夏雨·인도-불교철학) 교수이다. 이분들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까지 본교에 재직하며 활발한 학내외 활동을 통해 본교 철학과를 명실상부한 한국 동양철학계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 활동을 계속하며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제1, 2세대의 이름만 상기해 보아도 본교 철학과가 명실상부하게 한국 동양철학계를 선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제3세대는 이러한 선배 교수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1994년 김충렬, 윤사순 교수에게서 동양철학을 배운 이승환(李承煥, 중국철학·비교철학 담당) 교수가 부임하면서 본교 철학과에 제3세대의 학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불교·인도철학 담당의 조성택(趙性澤), 도가·도교철학 담당의 오상무(吳相武), 한국철학 담당의 김형찬(金炯贊) 교수가 부임하면서 철학과는 제3세대의 진용을 제대로 갖추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그 사이 본교 철학과에서 길러 낸 동양철학 분야의 학자들은 이미 한국 동양철학계의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본과에서 배출한 동양철학 전공 박사가 70여 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전국 각 대학에

서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힘쓰는 한편 ‘중국철학회’, ‘한국사상사연구회’ 등의 학회를 조직해 동문들과의 학문적 유대감을 다지며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어 학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II. 제1세대(1945~1971): 현상윤, 이상은, 김경탁, 김동화

현상윤 선생은 와세다대학 학생시절 100점 만점의 한문과목시험에서 120점을 받은 탁월한 실력으로, 이미 일제 강점기에 『한국유학사』와 『한국사상사』의 저술을 준비했던 듯하다. 그는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본교의 초대총장으로 취임함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조선유학사』로 본교 박사학위 제 1호를 기록하고 그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당시의 강의 노트였던 『조선사상사』 역시 출판을 준비하다가 조판 중에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이 노트의 내용은 선생이 납북된 뒤 다른 원고로 『아세아 연구』지에 특별 게재되었다. 이 두 책은 모두 두 방면의 효시였다. 효시를 이룬 두 저서는 내용 또한 매우 충실하였다. 『조선유학사』는 한국유학을 성리학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유학의 철학적 특징을 처음으로 바르게 드러내었으며, 한국유학이 결코 조선조 패망의 원인이 아니라는 공과론(功過論)까지 결들임으로써, 한국유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시도하여 이후 새로운 연구의 길을 터놓았다. 『조선사상사』는 화랑의 정신 등에 대한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상이 본래의 무속적 신교를 바탕으로 유·불·도를 한국의 여건에 맞도록 수용한 점을 부각시켜, 처음으로 한국사상의 사상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충실한 내용의 저술을 내는 데 선구가 됨으로써, 선생은 전공 분야에서 학문적 개척자 또는 선구자 역할을 다하였다.

다른 한편 그는 공사가 매우 분명한 분이였다. 공무 이외에는 총장 전용차도 이용하지 않았고, 출퇴근마저 교직원의 통근차를 이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학으로 닦은 그의 인격은 타인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였지만, 그가 타인의 존경을 받게 된 이면에는 또 다른 원인이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대학생 때에 감행했던 독립운동 때문이였다. 그는 와세다대학 학생 신분으로 3·1운동의 준비에 33인 못지않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런 ‘행동하는 지성인’의 상으로 인해 타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처럼 현상윤 선생은 학문과 인격과 용기를 두루 갖춘 보기 드문 분이셨다.

한편, 일찍이 북경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이상은 교수는 『중국고대 철학사』(유학편)을 저술하였고, 「맹자연구」를 비롯한 수십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성실한 학자였다. 그중 주요 논문들은 영어 또는 중국어로 번역·발표되어 외국에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또한 그는 동양철학자로서 철학개론을 저술·강의하였을 정도로 서양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러한 그의 탁월한 학문적 역량으로 인해 자연히 ‘동양철학의 현대화’에도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저서인 『동양사상과 현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교양의 차원에서 중국 철학의 현대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공헌했을 뿐 아니라, 논문 「인(仁)과 휴머니즘」처럼 전문적 차원에서도 동양철학의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그의 동양철학 현대화 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점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뚜 웨이밍(Tu Wei-Ming) 교수가 1985년에 낸 저서(*Confucian Thought*)에 수록한 ‘이상은 교수에게 바치는 헌사’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선생은 동양철학을 현대화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한국 철학계에서 일인자이자 선구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는 본교 아세아문제연구소를 창설하고 13년간이나 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事)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관을 가졌던 그는 학자로서 전공분야의 논문만 쓰거나 강단에서 강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처장, 문과대학장을 비롯한 보직

을 늘 맡아 수행하였고, 이승만 정권이 감행하던 독재에 대해서는 붓과 행동으로 저항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6·25전쟁 중 피난처인 부산에서 이승만이 이른바 국회프락치 사건을 저지르자, 선생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재를 자행하였던 원세개를 비판한 「원세개론」을 『고대신문』에 게재하여, ‘고대신문의 폐간’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4·19의거 때에는 ‘전국교수단 시국선언문’을 직접 기초하고 그 데모를 선두에서 인도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자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였다. 4·19의거가 성공하여 그에게 문교부장관의 제청이 오자 그는 끝내 사양하였고, 그 후 정년퇴직이 가까웠을 무렵 재단으로부터 총장교섭이 왔을 때에도 끝까지 고사하였다. 그는 학자로서의 영역, 그 엄격한 한계 내에서 행동한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와세다대학 졸업 후 북경 유학까지 한 김경탁 교수 역시 동양철학 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분이었다. 『사서(四書)』, 『화담집(花潭集)』, 『울곡집(栗谷集)』 등 동양고전의 번역과 해설, 『중국철학사상사』의 편저, 논문 「울곡사상의 연구」 발표 등 교양과 전문이라는 두 차원에서 동양철학의 현대적 이해에 그가 기여한 공헌은 지대하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노장철학과 주역의 변화철학에 기반을 둔 ‘자신의 생성철학’을 창안·제창하여, 현대화된 새로운 동양 철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A becomes non-A”로 요약되는 그의 생성철학은 당시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채로운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항상 사색과 집필에 여념 없이 조용하기만 하였던 선생은 학과장 이외에 학교의 어떤 보직도 마다하였다. 교무처장을 맡아달라는 당시 유진오 총장의 요청도 완강히 거절한 분이었다. 그러나 그런 분이었어도 독재에 저항하는 용기만은 결코 타인에 못지않았다. 그는 박정희 정권시절 교수들의 양심선언에 해당하는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이른바 ‘정치교수’의 낙인을 받고 2년간의 무직상태에서 고난을 감수하였다. 그 역시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지성인의 역할에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동화 교수는 원래 동국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그곳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교로 오셨던 분으로, 당시 한국의 불교학자로서는 제일인자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였다. 일제 강점기에 이미 일본의 모 불교대학 전임교수였던 선생의 경력도 이를 입증해 준다. 『불교개론』을 비롯하여 『유식철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술 또한 그가 이 분야의 일인자였음을 증명한다. ‘생불(生佛)’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자비로운 모습의 선생은 “머무르는 곳 어디나 다 나의 거처(집)”라는 자세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본교 철학과를 아끼며 학생들의 지도에 성의를 다하였다. 그의 고결한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학문과 훈도를 직접 받은 제자들은 그의 학문 이상으로 그의 인품을 잊지 못한다.

제1세대의 교수들의 지도 아래서 1975년부터 본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자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처음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은 당시 본교에 재직 중이던 김영철, 신일철, 윤사순 교수였다. 이듬해에는 역시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최동희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사순 교수는 본래 한국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논문의 제목은 ‘퇴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였다. 특이한 것은 영미철학 담당의 신일철 교수와 독일철학 담당의 최동희 교수가 각각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신후담 안정복의 서학 비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양철학 연구에서 연마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철학에 관심을 기울였던 당시 본교 철학과의 학문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성 명	학위수여일	박 사 학 위 논 문 제 목
申 一 澈	1975. 9. 11	申采浩의 歷史思想 研究 : 梁啓超를 통한 西歐思想 受用을 中心으로
尹 絲 淳	"	退溪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崔 東 熙	1976. 2. 25	愼後聃 安鼎福의 西學 批判에 관한 研究

Ⅲ. 제2세대(1971~2002): 김충렬, 김하우, 윤사순

방동미(方東美), 모종삼(牟宗三), 서복관(徐復觀) 등 기라성 같은 중국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대만에서 공부한 김충렬 교수가 1970년 본교에 부임하였다.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방동미 교수로부터 중국철학의 정맥을 계승하고 온 그는 제1세대 학자들이 떠난 한국의 중국철학계에서 줄곧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선생은 『동양사상산고』(I·II), 『중국철학산고』(I·II), 『중국철학사』, 『노장철학강의』 등을 저술했고, 중국철학뿐 아니라 한국유학으로도 관심을 넓혀 가며 『고려유학사』와 『한국유학사』를 집필하기도 했다. 선생은 노장철학을 중심으로 제자백가와 그 이전의 고대 중국으로 중국철학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편, 삼국시대의 유학으로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성리학에 이르는 한국유학의 맥을 따라 내려오며 한국유학사를 정리하였다. 때로는 시공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노장철학자로서, 때로는 춘추필법의 역사관에 목숨을 건 유학자로서, 열정에 넘치는 선생의 강의는 고려대에서도 명강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또한 지사적 풍모를 갖춘 선비로서 1980년대 군사정권의 축출에 앞장서기도 했던 선생은 이른바 ‘6·29선언’을 이끌어 낸 숨겨진 주역 중 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상은 교수의 수제자인 윤사순 교수는 1974년 이 교수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본교에서 퇴계 이황의 철학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선생은 1980년대 초반부터 「존재와 당위에 관한 퇴계의 일치시」, 「퇴계의 성선관(性善觀)」, 「인성 물성의 동이(同異)논변에 관한 연구」 등 조선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논문들을 국제학회에 발표하며 국내외적으로 한국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자리를 굳혔다. 그 후 『한국유학논구』, 『한국유학사상론』,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 등의 저작을 연이어 내놓으며 탁월한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유학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 ‘신실학’ 운동을 제안하고

그 성과를 『신실학 사상론』이라는 저서로 정리해 내기도 하였다.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시도해 온 선생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자로서 후학들의 모범이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본교 철학과 출신의 교수로서 늘 철학과와 관련된 안팎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좌장의 역할을 하였고, 총무처장·민족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연구자들의 학문적 연구와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보여주었다. 정년퇴임을 한 뒤에도 철학과 안팎의 대소사를 치를 때는 언제나 선생에게 의논하는 것이 당연시될 만큼 후진들로부터 덕망을 얻고 있다.

인도 델리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한 김하우 교수는 1981년 본교에 부임했다. 선생은 나가르주나의 중관(中觀)사상을 기반으로 인도불교의 특성이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중국불교와 한국불교로 연구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중관의 전오방식(轉悟方式)에 있어서 불가득의(不可得義)」, 「반야공(般若若空)의 전오방식(轉悟方式)」, 「삼론과 화엄계의 전오방식」 등 선생의 대표적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깨달음의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관, 삼론, 화엄 등 동아시아의 불교학 전체를 아우르는 학문세계를 구축하였다. 강의에 몰두할 때나 혹은 교정을 거닐 때 늘 명상에 잠긴 듯한 선생의 모습은 후학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2세대의 교수들은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며 식을 줄 모르는 학문적 열정으로 후학들의 사표가 되었다. 김충렬 교수는 2004년 『노자강의』, 2007년 『중용대학강의』를 내놓은 데 이어 『장자』, 『주역』 등 중국철학의 주요 원전에 대해 재해석을 시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더욱 깊어지던 2008년 불의의 사고로 작고하였다. 2015년에는 강원도 원주시에 ‘중천철학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 건립되어 선생의 학덕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

윤사순 교수는 2006년 1월 콜레주 드 프랑스(College de France)에

서의 특강을 비롯해 여전히 활발한 학문 활동을 펼치며, 『유학의 현대적 가용성 탐구』(2006), 『유학자의 성찰』(2007), 『실학의 철학적 특성』(2008), 『조선, 도덕의 성찰』(2010), 『근본원리로 본 한국의 유학 사상』(2016) 등 주목할 만한 저술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에는 필생의 역작인 『한국유학사: 한국유학의 특수성 탐구』(전 2권)이 발간되었으며, 이 책은 2016년 10월 중국 인민출판사에서 중국어판이 출간될 예정이다. 그리고 2012년에는 동양철학 및 한국철학계에 기여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제2세대의 또 다른 주요 공헌은 한국의 동양철학계를 이끌어 갈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는 동양철학 분야에서 총 47명의 박사학위자가 배출됐다. 원효 저작의 역주본을 연이어 내놓으며 전문연구자로서 고전번역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는 은정희 교수(서울교육대·정년퇴임)와 한국 최고 수준의 노장철학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강수 교수(연세대·정년퇴임)를 비롯해 고강욱(부경대), 윤친근·이효걸(안동대), 김기현·정대환(전북대), 김왕연(한남대), 이애희(강원대), 유초하(충북대), 박태원(울산대), 유권중(중앙대), 장숙필·김문용(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송갑준(경남대), 홍원식(계명대), 원정근(증산도사상연구소), 김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세호(경성대), 오진탁(한림대), 손병욱(경상대), 김영욱·최정규(가산불교문화연구원), 김용현(한양대), 김낙진(진주교육대), 박원재·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이동철(용인대), 김미영(서울시립대), 이덕진(창원문성대), 강춘화(덕성여대), 박학래(군산대), 유동환(건국대) 등 본교 출신의 많은 동양철학 박사들이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본교 철학과 출신 동양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학회도 결성되어, 서로의 연구를 독려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 동양철학의 연구수준을 질적·양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중국철학 연구자 중심으로 1982년 만들어진 ‘중국철학회’는 연구성과를 모아 『중국의

성명	학위수여일	박사학위논문제목
李康洙	1983. 2. 25	莊子の 自然과 人間의 問題
殷貞姬	"	起信論 疏·別記上에 나타난 元曉의 一心思想
安鍾沄	1986. 2. 25	孔子·孟자의 政治哲學에 관한 研究
高康玉	1987. 8. 25	周濂溪의 『通書』 研究
尹天根	"	中庸 研究 : 中庸의 率性修道論
金基鉉	1988. 8. 30	退溪哲學의 人間學的 理解
金在烈	1989. 8. 19	唐宋時代의 山水畫論 研究
金玉淵	1990. 2. 24	茶山 易學의 研究
丁大丸	1990. 8. 17	16世紀 前半期 韓國 性理學의 天人觀
文載坤	"	漢代 易學 研究
李愛熙	"	朝鮮後期の 人性和 物性에 대한 論爭의 研究
柳初夏	1991. 2. 25	丁若鏞의 宇宙觀
曹京鉉	"	莊子の 『大全之道』와 『逍遙精神』 研究
李孝杰	"	華嚴經의 成立背景과 構造體系
朴太源	"	『大乘起信論』 思想 評價에 관한 研究
劉權鍾	1991. 8. 30	茶山 禮學 研究
張淑必	1992. 2. 25	栗谷 李珥의 聖學 研究
宋甲準	"	星湖 李翼 哲學 研究
洪元植	"	程朱學의 居敬窮理說 研究 : ‘知의 行으로 移行을 中心으로
元正根	1992. 2. 25	郭象 天人調和觀의 研究 : 自然, 人間, 社會의 全一的 調和를 中心으로
金炫	1992. 8. 25	鹿門 任聖周의 哲學思想
張世浩	1993. 2. 25	沙溪 金長生 禮說의 研究
具春樹	"	權近 哲學思想의 研究
劉英姬	1993. 8. 25	白湖 尹鏞 思想 研究
吳進鐸	"	憨山の (莊子內篇解)에 대한 研究
孫炳旭	1994. 2. 25	惠岡 崔漢綺 氣學의 研究
金榮郁	"	『壇經』 禪 思想의 研究
金文鎔	1995. 8. 25	洪大容의 實學思想에 관한 研究

金 容 憲	”	崔漢綺의 西洋科學 受容과 哲學 形成
全 擇 元	”	霞谷 鄭齊斗의 ‘心體’에 관한 研究
李 丙 旭	”	天台智顓 哲學思想 論究： 「法華文義」·「摩訶止觀」과 「維摩經玄疏」의 비교를 중심으로
金 洛 眞	1996. 2. 24	丁時翰과 李栻의 理 體用論 研究
朴 元 在	1996. 8. 24	道家의 理想의 人間像에 대한 연구: ‘自我의 完成을 중심으로
金 炯 瓚	”	理氣論의 一元論化 研究： 鹿門 任聖周와 蘆沙 奇正鎭을 중심으로
崔 晶 圭	”	無着(Asanga) 唯識哲學의 研究: 『攝大乘論을 중심으로』
李 東 哲	1997. 8. 25	『黃帝四經』의 哲學 研究： 先秦 道家思想의 새로운 理解와 관련하여
朴 璟 煥	1998. 2. 25	張載의 氣論의 天人合一思想 研究： 天道論과 人道論을 중심으로
李 錫 明	”	「淮南子」 無爲論 研究: 道事並重의 理論體系를 中心으로
安 泳 翔	1999. 2. 25	星湖 李滉의 性理說 研究
金 在 淑	”	魏晉南北朝 藝術思想 研究: 書化論을 중심으로
金 美 榮	”	朱熹의 佛教批判과 工夫論 研究
金 哲 運	1999. 8. 25	『大學』의 平天下思想에 관한 研究： 儒家 政治理想의 實踐的 展開
李 德 辰	2000. 8. 25	普照知訥의 禪思想 研究: 中國佛教와 關聯하여
劉 東 桓	2001. 2. 25	李贄의 天人理欲論 研究
金 帝 蘭	”	熊十力 哲學思想 연구： 동서문화의 충돌과 중국전통철학의 대응
姜 春 華	”	洪大容의 實學的 認識論에 대한 研究： 朱熹說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朴 鶴 來	2001. 8. 25	蘆沙 奇正鎭 哲學思想 研究: 性理說을 中心으로

사회사상』(1992),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1994), 『현대의 위기, 동양철학의 모색』(1997), 『역사 속의 중국철학』(1999) 등의 연구서를 출간하였다. 한편, 한국철학 연구자 중심으로 1986년 결성된 ‘한국사상사연구회’는 공동연구의 성과로 『사단칠정론』(1992), 『인성물성론』

(1994), 『실학의 철학』(1996), 『조선유학의 학파들』(1996), 『조선유학의 자연철학』(1998),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2001), 『조선유학의 ‘개념’들』(2002) 등의 저작을 출간하였으며, 2015년에는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의 영역본 *Korean Philosophy: Sources and Interpretations*을 발간하였다.

IV. 제3세대의 학자들과 동양철학의 미래(2002~)

1998부터 2002년까지 김충렬, 김하우, 윤사순 교수가 차례로 정년 퇴임을 하면서 제3세대 학자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미 1982년에 김충렬 교수의 제자인 김용욱 교수(중국철학)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철학과에 부임했지만 4년만인 1986년 사직함으로 인해 제3세대 학자로서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그 뒤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이승환 교수(중국철학·비교철학)가 1994년에 부임하면서 제3세대 학자로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았고, 2002년 1학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주립대학 교수로 있던 조성택 교수(불교·인도철학), 같은 해 2학기에는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오상무 교수(도가·도교철학), 그리고 2005년 2학기에는 본교에서 한국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형찬 교수(한국철학)가 부임하면서 본교 철학과와 동양철학 분야는 전공별로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제3세대 교수들의 연구에서 특기할 것은 그간에 본교 철학과에 축적된 동서양철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6년 9월 설립된 ‘고려대학교 부설 철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동양 및 서양철학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적 합리성 연구’는

2002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기초학문육성지원(인문·사회분야) 대상으로 선정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그 성과물은 2005년 『동서철학의 공적합리성』을 비롯한 3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어 역시 동·서양철학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심신 가치론 연구’도 기초학문육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005년 9월부터 3개년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성과는 2013년 ‘심신가치론 연구 총서’(전3권)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철학연구소가 그간의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교내외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2017년까지 총 9년간 지원을 받는 이 장기 프로젝트의 선정시에서도 ‘호모 데지데란스(Homo Desiderans)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서철학 연구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제3세대의 교수들은 철학과와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하고 선배 교수들에 못지않게 학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구철학 및 비교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교수는 6년간 철학연구소 소장(2008.4-2014.11)을 맡아 연구소 발전에 힘썼으며, 특히 이 기간에 철학연구소가 총 9년간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철학연구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Topography of Confucian Discourse: Political-philosophical Reflections on Confucian Discourse since Modernity*(2006), 『황실과 수설: 4백년을 이어온 조선유학 성리논쟁에 대한 언어분석적 해명』(2012) 등의 저서, 「朱子氣質變化說의品性倫理意義」(2010), 「퇴계 리발설의 수반론적 해명」(2010), 「남명 학기도(學記圖) 자도설 비정」(2012)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활발한 학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교·인도철학을 담당한 조성택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2005.9-2007.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원장(2015.3-2016.8), 한국철학회 편집위원장, 화쟁문화아카데미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학내외에서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생교과서

부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부처다』(공저, 2015), 『불교와 불교학: 불교의 역사적 이해』(2012), *Buddhism and Violence* (공저, 2012) 등의 저서, 「근대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민족주의적 역사 기술에 관한 비판」(2010), 「초기불교사 ‘재구성’에 관한 검토」(2009)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성과를 인정 받아 불이상(학술부문, 2004),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2011), 원효학술상(2013) 등을 수상하였다.

도가 및 도교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오상무 교수는 2014년 12월 부터 본교 철학연구소 소장 겸 ‘Homo Beatus (행복한 인간)에 관한 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스탠포드대학 철학과에 방문학자(2012. 9 - 2013. 8), 독일 Erfurt 대학 철학과와 본교 철학과와의 공동학술회의 발표(2015.10) 등 해외 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白馬非馬』論考」(2012), 「『장자』의 좋은 사회관에 대한 구성적 이해」(2012), 「『노자』 無名論 新探」(2010), “Two Perspectives on Human Beings: Xunzi and Zhuangzi”(2009), 「『老子』의 自然 개념 論考」(2008) 등 도가철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철학을 담당한 김형찬 교수는 ‘조선시대 지식·지식인 재생산 체계 연구’(2011.5-2014.4), ‘조선전기의 지식국가 만들기’(2015.3-2016.2) 등의 연구기획·책임을 맡아 왔다. 또한 東亞儒學國際學術研討會(2012, 상해), 미국철학회(2013, 샌프란시스코), 북미한국철학회(2014, 오마하), 한국·비교철학 학술대회(2013, 2014, 홍콩) 등에 발표자로 참여하고, “Internalizing Morals and the Active Intervention of a Moral System”(2015), 「조선시대 지식생산체계 연구방법과 지식사회의 층위」(2014), “The Theory and Practice of Sage Politics”(2014), 「安東 金門의 지식논쟁과 지식권력의 형성」(2012), 「마음의 理氣와 자연의 理氣」(2010)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한국철학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V. 동양철학의 계승과 발전

2002년 이후에도 제2, 3세대 교수들의 지도 아래 학문을 연마했던 젊은 연구자들이 속속 박사학위를 받고 동양철학계의 전면으로 진출하고 있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명의 동양철학 박사가 배출되었다. 김경호(전남대), 박재술(한국연구재단), 한명숙(동국대), 최은영(금강대), 전병욱(본교 철학연구소), 김근호(한국학중앙연구원),

성명	학위수여일	박사학위논문제목
金 璟 鎬	2002. 8. 25	栗谷 李珥의 心性論에 관한 研究
朴 在 述	2003. 2. 25	『易』의 ‘感’에 관한 研究
韓 明 淑	2003. 8. 25	吉臧의 三論思想 研究 : 無得의 轉悟方式을 中心으로
崔 恩 英	”	天台大師 智顓의 佛身觀 研究
宋 辰 顯	2005. 2. 25	『金剛三昧經論』의 中道の 사유체제 연구
金 容 暉	”	侍天主 思想의 變遷을 통해 본 東學 연구
金 太 年	2006. 8. 25	南塘 韓元震의 ‘正學’ 形成에 대한 研究
田 炳 郁	2008. 2. 25	朱子 仁論 체계와 工夫論의 전개
金 根 浩	”	華西 李恒老의 理學的 心論 연구
洪 性 敏	2008. 8. 25	朱子 修養論의 구조와 실천적 성격
조 정 희	”	兪吉濬의 開化思想에 대한 研究
南 智 萬	2009. 8. 25	高峯 奇大升의 性理說 研究
朴 東 仁	2010. 8. 25	董仲舒 儒術獨尊의 정치철학적 의미
全 聖 健	”	茶山의 禮治思想 研究
황 호 식	2011. 8. 25	순자의 욕망론과 사회적 삶의 원리
羅 佑 權	”	成玄英의 『老子義疏』 연구
金 亨 中	2012. 2. 25	‘덕(德)’, 함양과 행위 지침
韓 在 堦	”	退溪 禮學思想 研究
張 炳 漢	2014. 2. 25	沈大允의 書經蔡傳辨正에 대한 연구
廉 仲 燮	2014. 8. 25	懶翁의 禪思想 研究
崔 普 京	2015. 2. 25	율곡 사상의 승반론적 이해

홍성민(숙명여대), 남지만(한국고전번역원), 박동인(안동대 퇴계학연구소), 전성건·한재훈(연세대 국학연구원), 엄중섭(중앙승가대) 등 이 시기에 배출된 박사들은 동양철학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본교 철학과의 동양철학 분야는 제1, 2세대 선배학자들의 화려한 후광을 속에서 줄곧 한국 동양철학계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곳에서 배출한 동양철학 전공 박사학위자가 이미 71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대부분 전국 각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며 동양철학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선배학자들이 쌓아 놓은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후배 학자들 역시 새로운 연구에 힘쓰는 한편,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굳건히 다져 후학들의 모범으로 삼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8년 2월에는 이상은 교수의 저술을 정리하여 『이상은 선생 전집』(전4권·예문서원)을 출간하였고, 2005년 7월에는 ‘경로 이상은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해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로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윤사순 본교 명예 교수), 「경로의 중국철학사 연구 경향」(김병채 한양대 교수), 「경로의 한국철학 연구와 그 특징」(김낙진 전주교육대 교수) 등 3편의 글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철학과 동문들의 정성으로 기당 현상윤 선생의 흉상을 제작해 본교 중앙도서관(대학원) 앞 잔디밭 위에 세우고, 9월25일 흉상 제막식을 가졌으며, 2008년 6월에는 『기당 현상윤 전집』(전5권·나남출판)을 출간하고 기념학술대회 ‘기당 현상윤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현상윤과 3·1운동」(김기승 순천향대 교수), 「기당 소설의 수사학」(김인환 본교 교수), 「기당의 『조선유학사』의 저술 배경과 그 특징」(오종일 전주대 교수), 「한국사상에 있어서 ‘불교사상’ 서술에 관하여」(조성택 본교 교수) 등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김경탁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김경탁 선생의 학문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서는 「존재론과 정면 대결한 생성 철학자 우암 김경탁 선생」(정인재 서강대 교수), 「우암 김경탁 선생의 유교 연구」(이승환 본교 교수), 「김경탁 선생의 도가철학 연구」(이강수 연세대 교수), 「우암 생성철학의 학문적 의의」(송영배 서울대 교수)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5년 10월에는 이상은 선생의 탄생 110주년을 맞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윤사순 본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어설피 그려본 이상은 선생의 뒷모습」에 이어 「이상은 선생의 동양철학에 대한 현대적 해석」(정인재 서강대 명예교수), 「현대신유학과 이상은」(홍원식 계명대 교수), 「경로 이상은의 한국유학 연구방법과 정신」(김낙진 진주교대 교수), 「이상은 선생의 ‘근대’ 연구와 ‘탈근대’의 전망」(김형찬 본교 교수)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